

긴급사태 선언 해제에 따른 5월 26일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2020년 5월 26일
2020년 5월 29일 개정

오이타현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에서의 감염확대에 응하여 아래 밑줄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4월 7일에 발령된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은 신규 감염자 수의 감소와 의료제공체제의 긴급 상황 개선 등을 감안하여 지난해 5월 25일부로 모든 도도부현에서 해제되었다.

본 현에서는 현민의 이해와 협력으로 최근 1개월 이상 신규 환자 수는 제로이며 병상 이용률도 1%를 밑돌고 있다.

그렇지만, 역시 전국적으로 보면 돌발적인 환자수의 증가가 보여 충분히 경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변함없다.

향후에는, 감염 확대 방지와 사회경제 활동의 재활성화를 「양립」시키는 새로운 스테이지를 맞이한다.

현은 계속해서 감염 확대를 방지하는 「일정한 이행기간」을 마련해 외출 자제나 시설의 사용 제한 등을 완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사회경제 활동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한다.

1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의 철저화에 대해서

(1) 현 경계를 넘는 이동

① 현 경계를 넘는 이동에 대해서

-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현 경계를 넘는 불요불급한 이동은 피할 것
- 6월 1일부터는 전체 도도부현으로의 이동은 무방하다 다만 일부 수도권 (도쿄 카나가와 치바 사이타마) 및 홋카이도에 더하여 키타큐슈시와의 이동에 대해서는 6월 18일까지의 기간은 신중히 행할 것.

② 관광에 대해서

현 경계를 넘는 관광에 대해서도 상기와 같으나, 관광진흥에 대해서는 6월 18일까지는 현 내에서 진흥에 노력하고, 6월 19일 이후에는 현 경계를 넘는 진흥에도 노력한다.

(2) 현민생활의 부탁(새로운 생활양식의 실천·정착)

·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꼼꼼한 손 씻기나 기침 에티켓은 물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사람과의 간격은 가급적 2m를 벌린다. 대화할 때는 대면을 피하는 등 새로운 생활양식을 실천하고 정착시키는 것.

· 산책·쇼핑은 물론, 레스토랑이나 선물집 등에서의 식사 등도 무방하지만, 그 경우에 있어서 「3가지의 밀(密)(환기가 나쁜 밀폐공간, 많은 사람의 밀집, 근거리에서의 밀접한 대화)」가 겹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할 것.

· 또, 3가지 밀(密)이 보다 농밀한 형태로 겹칠 가능성이 높은 변화가의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점 등(카바레, 나이트클럽, 노래방, 라이브 하우스 등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염 확대 방지책이 되어있지 않은 점포에의 출입을 피할 것

(3) 사업자에 대한 요청

①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의 철저에 대해서

- 업종별로 책정되어 있는 「감염 확대 예방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적절한 대책을 실시할 것
- 유기시설(마작점, 파칭코점, 오락실 등)에 대해서도 상기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3가지의 밀(密)의 회피를 포함해 각 점포의 상황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할 것
단,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현 외 이용객을 제한할 것.
- 3가지의 밀(密)이 보다 농밀한 형태로 검출 가능성이 높은 변화가의 접대를 수반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검온, 환기의 철저 등 각각의 점포의 상황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할 것.

② 새로운 생활양식으로의 이행·정착에 대해서

재택근무(텔레워크)나 시차 출근, 자전거 통근, Web 회의 이용 등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 기회를 저감 하는 대처를 추진할 것.

(4) 이벤트 등의 취급

이벤트나 집회 등에 대해서는 3가지 밀(密)의 회피 등 적절한 감염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감염 상황이나 감염 확대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규모 요건을 완화하다.

또, 이벤트의 주최자에 대해서는 감염 방지책의 철저화는 물론, 참가자 명부의 작성에 의한 연락처 등의 파악에도 노력할 것.

① 6월 18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 실내라면 100명 이하, 동시에 수용 정원의 절반 이하의 참가 인원으로 할 것.
- 실외라면 200명 이하, 동시에 사람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가능한 한 2m) 가능할 것

② 6월 19일부터 7월 9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 실내, 실외 모두 1,000명 이하로 하고 동시에 실내에서는 수용 정원의 절반 이하의 참가 인원
에 할 것 실외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가능한 한 2m)할 수 있을 것.

③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은

- 실내, 실외 모두 5,000명 이하로 하고 실내에서는 수용정원의 절반 이하의 참가인원으로 할
것 실외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가능한 한 2m)할 수 있을 것.

④ 8월 1일 이후는

실내에서는 수용정원의 절반 이하의 참가인원으로 할 것. 실외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가능한 한 2m)할수 있을 것으로 하여 실내, 실외 모두 인원수의 상한은 두지 않
는다

2 학교의 대응에 대해서

(1) 현립고교·중학교에 대해서는 현내 발생 상황에 큰 변화가 없으면 국가의 「학교에 있어

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위생관리 매뉴얼(이하 「국가 매뉴얼」)에 의거하여 가능한 한 감염증 대책을 강구한 후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통상 학교 운영으로 이행한다. 또한, 감염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간격을 둔 좌석 배치 등의 대책을 철저히 하여 대형 버스 수송은 6월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한다.

2)현립 특별지원학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어 개개인의 아동학생 장애 상황에 충분히 배려하면서 6월 1일 이후, 3가지의 밀(密)을 피하도록 궁리한 후에 서서히 통상 학교 운영으로 이행한다.

스쿨버스에 대해서는 감염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간격을 둔 좌석 배치 등의 대책을 철저히 실시하고, 계속하여 필요에 따라 버스를 증차와 함께 학교 실정에 따라 보호자 승영을 요청한다.

(3) 부(部)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의 매뉴얼에 의거해 가능한 한 감염증 대책을 강구한 후 6월 1일 이후 단계적으로 통상활동으로 이행한다.

(4) 숙박을 수반하는 학교 행사에 대해서는, 중지가 곤란한 것은, 6월 이후, 3가지의 밀(密)이 겹치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한 후에 실시 가능으로 한다

(5) 학생 또는 교직원의 감염이 확인되었을 경우 국가 매뉴얼에 따라 해당 아동학생 등의 출석 정지 조치를 취하다. 또, 필요에 따라 학교의 일부 또는 전부 임시 휴업 조치를 취한다.

(6) 시정촌립 초중학교·의무교육학교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상기 대응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요청한다.

3 현립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해서

(1) 현립 도서관 등의 사회교육시설, 현립미술관, 현립 체육시설, 운전면허센터에 대해서는 감염 방지를 위한 만전의 조치를 취하면서 각 시설의 상황에 따라 서서히 이용제한을 완화하여 통상 운영으로 이행한다.

(2) 현립 사회교육시설 등에 있어서 대관행사에 대해서는 1(4)에 준하여 단계적으로 이용제한을 완화해간다.

4 생활·사업·고용 계속 지원에 대해서

(1) 생활 복지지원으로서 긴급 소액 자금 등의 특례 대출(무이자·보증인 불필요)을 실시와 함께 주거를 잃을 우려가 있는 분 등에게 주거 확보 급부금을 지급한다. 또, 시정촌이 특별 정액 급부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사업·고용 지속에 대한 지원으로서 지속화 급부금의 급부나 무이자 융자, 고용조정 조성금 등에 대해서 상공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시한다.

①중소기업은 최대 200만 엔, 개인사업주는 최대 100만 엔이 급부되는 지속화 급부금에 대해서는 급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상공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한다.

②중소기업의 금융 대책으로서 민간 금융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무담보·무이자 융자 제도나 벤처기업의 사업 계속에 대한 융자 자금의 활용을 진행한다.

③고용조정 조성금에 대해서는 오이타현 사회보험 노무사회 내에 설치된 고용유지 지원센터에서 소규모 사업자 등의 신청을 지원한다.

(3)여관·호텔에 대해서는 오이타현 여관 호텔 생활위생 동업조합을 중심으로 감염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숙박시설을 지원과 함께 음식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생활양식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는 등 세심한 대응을 한다.

(4) 이러한 지원은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계 기관의 협력도 받으면서 반주형으로 지원을 실시해 간다.

감염 확대 방지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상담 창구(콜센터 : 0120-936-692)